

현안과 과제

- 엔겔계수, 2000년 이후 21년 만 최고치
- 2021년 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목 차

■ 엔겔계수, 2000년 이후 21년 만 최고치

- 2021년 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분석 결과	2
3. 엔겔계수 및 슈바베계수 급등의 원인	3
4. 시사점	6
【부록】 엔겔계수 및 슈바베계수 도출 방법	9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엔겔계수, 2000년 이후 21년 만 최고치

- 2021년 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 개 요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문화, 레저, 외식, 교육 등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기본적 생계 유지를 위한 소비 지출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 통계를 이용하여 식비와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비중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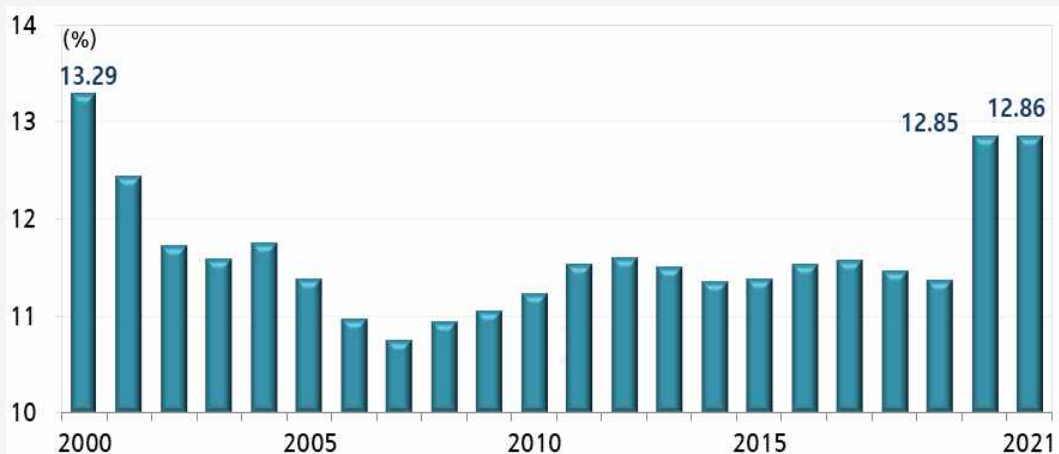
■ 분석 결과

2021년 우리나라 가계의 엔겔계수는 12.86%로 2020년의 12.85%보다 상승하였으며, 슈바베계수는 17.94%로 2020년의 18.56%보다 감소하였다.

① 엔겔계수(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

가계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는 2021년 12.86%로 2000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1.37%에서 2020년 12.85%로 급등한 이후 2021년 12.86%로 다시 높아졌다. 이는 21년 전인 2000년 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 엔겔계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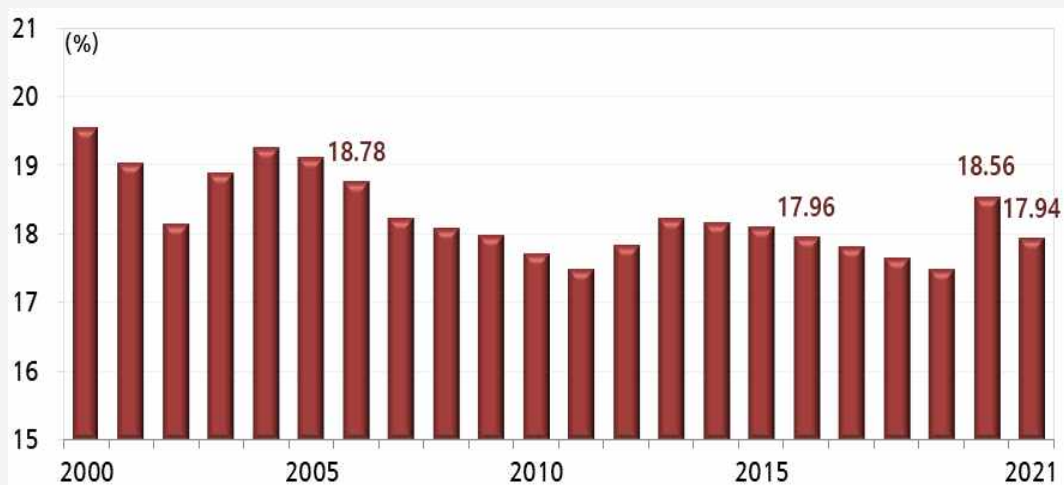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국내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품 지출 비중.

② 슈바베계수(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 비중)

가계의 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 비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계수는 2021년 17.94%로 2020년(18.56%)보다는 하락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 중 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계수는 2019년 17.50%에서 2020년 18.56%(1.06%p ↑) 그리고 2021년 17.94%(△0.62%p ↓)를 기록하였다. 비록 2021년 슈바베계수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최근 5년 내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 슈바베계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국내소비지출 중 임대료/수도광열 지출 비중.

■ 앵겔계수 및 슈바베계수 급등의 원인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앵겔계수와 슈바베계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원인은 첫째,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 소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소비행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은 가계소비(가계의 국내소비지출)증가율이 소득(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이 관계가 역전되어 가계소비(가계의 국내소비지출)증가율이 소득(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하회한다(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년 0.6%, '21년 6.8%이며, 가계 국내소비지출 증가율은 '20년 △3.3%, '21년 6.5%임). 이에 따라 실제로는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2021년에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지금의 불황 국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소비

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가계의 합리적 소비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앵겔계수 급등은 최근 식료품 물가의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료품 생산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농림수산물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료품 소비 비중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수입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8%에서 2020년 -8.7%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021년에는 17.6%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수입 물가 품목 중 농림수산물 수입물가 상승률은 2020년 0.6%에서 2021년에는 13.5%에 달하고 있다. 수입물가 급등은 국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데, 특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앵겔계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인 반면, 소비자물가 항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5.9%에 달한다.

셋째, 슈바베계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이에 따르는 전월세 비용 상승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에도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전년동월비 증가율 평균)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017년 1.3%, 2018년 2.2%, 2019년 1.4%에서 2020년 3.8%로 높아졌으며, 2021년에도 13.5%에 달한다. 이러한 주택매매시장 가격 급등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주거비를 높이고 있다. 주택전세가격지수 증가율(전년동월비 증가율 평균)은 2019년 -2.0%로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 들어 1.7%의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2021년에는 6.5%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주택월세통합가격지수 증가율(전년동월비 증가율 평균)도 2019년 -1.1%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 0.1%의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2021년에는 2.1%에 달하고 있다.

■ 시사점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정상화하고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첫째, 경기 회복세 강화와 민간 고용 시장 회복을 통해 가계 소비 심리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의 억제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주거비 부담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저가 주택임대 시장 활성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 비생계형 소비인 외식·레저·문화 관련 지출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여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1. 개요

○ 최근까지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소비 중 필수적 항목인 식품 및 주거비 비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발전된 경제일수록 의식주의 지출 비중은 낮아지고 자기 계발이나 여가 관련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생계형 소비인 의식주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

-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문화, 레저, 외식, 교육 등의 선진국형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최근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출은 커지고 이외 지출이 감소하는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 하락' 현상이 나타남

- 이에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하여 가계 소비에서 기본적 생계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의 항목을 이용¹⁾하여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식품과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 (엔겔계수, Engel's coefficient)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지출이 국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frac{\text{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text{국내소비지출}} \times 100 = \text{엔겔계수(\%)}$$

- (슈바베계수, Schwabe's coefficient) 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이 국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frac{\text{임대료 및 수도광열}}{\text{국내소비지출}} \times 100 = \text{슈바베계수(\%)}$$

1) 소비 지출 항목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최근 통계 개편으로 2018년과 2019년의 시계열 단절이 있고 2020년 연간 통계가 미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함. 또한 본 연구는 국민계정 잠정치 통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6월에 발표되는 확정치 결과에 따라 최근 연도의 계수값이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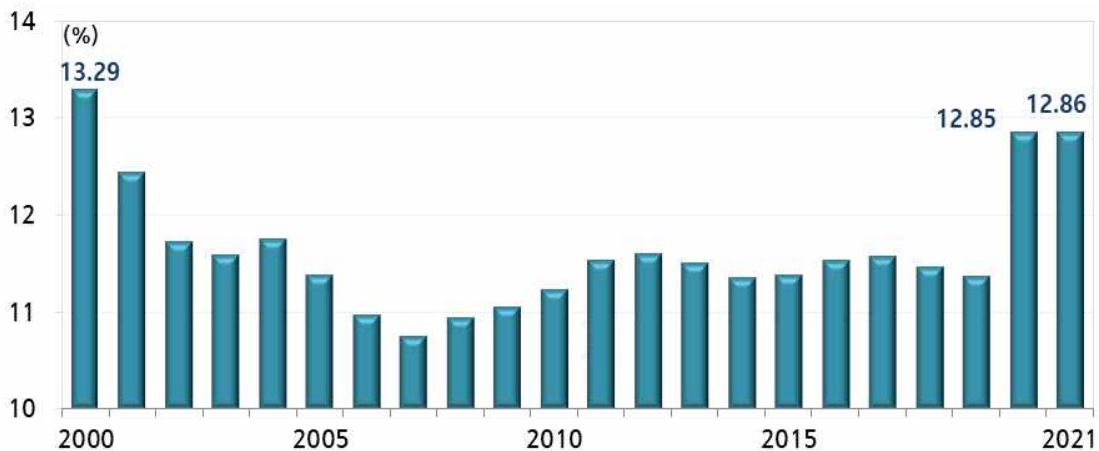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 2021년 우리나라 가계의 엔겔계수는 12.86%로 2020년의 12.85%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슈바베계수는 17.94%로 2020년의 18.56%보다 감소

① 엔겔계수(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

- 가계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는 2021년 12.86%로 2000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1.37%에서 2020년 12.85%로 급등한 이후 2021년 12.86%로 다시 높아짐
 - 이는 21년 전인 2000년 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됨

< 엔겔계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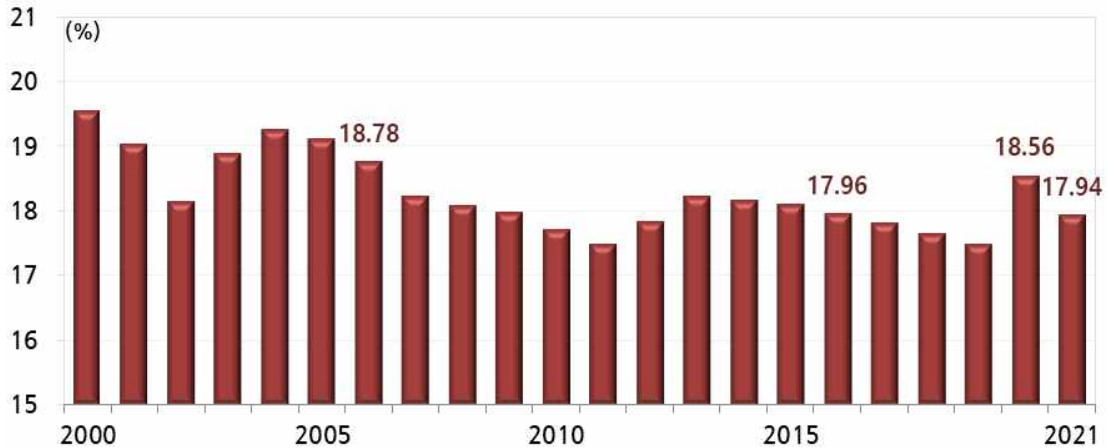
주: 국내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품 지출 비중.

② 슈바베계수(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 비중)

- 가계의 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 비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계수는 2021년 17.94%로 2020년(18.56%)보다는 하락
 - 가계의 소비지출 중 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계수는 2019년 17.50%에서 2020년 18.56%(1.06%p ↑) 그리고 2021년 17.94%($\Delta 0.62\text{p} \downarrow$)를 기록함

- 비록 2021년 슈바베계수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최근 5년 내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됨

< 슈바베계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국내소비지출 중 임대료/수도광열 지출 비중.

3. 앵겔계수 및 슈바베계수 급등의 원인

-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소비행태 때문으로 판단

- 2021년에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

-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은 가계소비(가계의 국내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함

- 그러나 코로나 위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이 관계가 역전되어 가계소비(가계의 국내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하회

-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18년 3.4%, '19년 1.9%, '20년 0.6%, '21년 6.8%

- ※ 가계 국내소비지출 증가율: '18년 4.7%, '19년 3.2%, '20년 △3.3%, '21년 6.5%

- 이에 따라 실제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

향은 2021년에도 낮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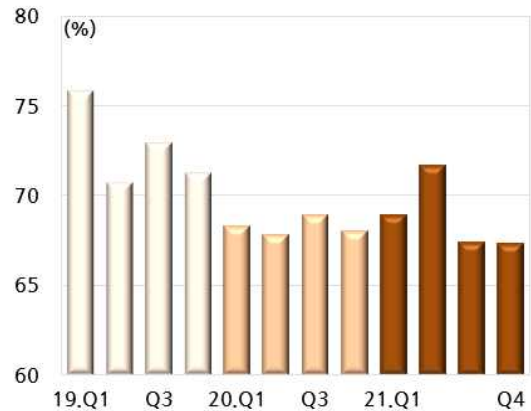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20년 평균소비성향이 2019년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최근 가계의 소비 행태에, 미래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소비지출 및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 평균소비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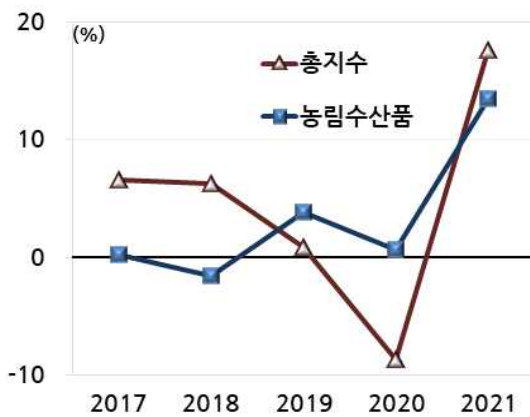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1인 이상 전국 명목 전체가구.

○ (식탁 물가 급등) 엔겔계수 급등은 최근 식료품 물가의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 식료품 생산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농림수산물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료품 소비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
 - 전체 수입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8%에서 2020년 -8.7%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021년에는 17.6%로 크게 높아짐
 - 수입 물가 품목 중 농림수산물 수입물가 상승률은 2020년 0.6%에서 2021년에는 13.5%로 높아짐
- 수입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엔겔계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

-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2.5%로 높아짐
- 특히, 소비자물가 항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2020년 4.4%에서 2021년 5.9%로 급증함

< 수입물가 및 농림수산물 수입물가 지수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 및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지수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 (주택 시장 불안) 슈바베계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이에 따르는 전월세 비용 상승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 2021년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017년 1.3%, 2018년 2.2%, 2019년 1.4%에서 2020년 3.8%로 높아졌으며, 2021년에도 13.5%를 기록함

- 주택매매시장 가격 급등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면서 가계의 전반적인 주거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주택전세가격지수 증가율은 2017년 1.0%에서, 2018년 -0.7%, 그리고 2019년 -2.0%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그러나 2020년에 들어 1.7%의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2021년에도 6.5%나 증가함
- 주택월세통합가격지수 증가율도 2017년 -0.3%, 2018년 -0.7%, 2019년 -

1.1%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020년 0.1%의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2021년에는 2.1%를 기록함

<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 >



자료: KB국민은행.
주: 각 연도 전년동월비 증가율 평균.

< 주택 전세 및 월세 가격지수 상승률 >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 각 연도 전년동월비 증가율 평균.

4. 시사점

첫째, 경기 회복세 강화와 민간 고용 시장 회복을 통해 가계 소비 심리 개선에 도모해야 한다.

- 경제위기 장기화로 미래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가계는 현재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는 동기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가계 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고용 시장의 개선이 지속되도록,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창업 지원,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고용 시장 회복의 핵심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역 상황의 개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방역 정책은 '위드코로나'보다 더 완화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둘째,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의 억제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 수입 가격 급등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 실수요 파악을 통해 수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 물량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또한, 수급 상태와 관계없이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물가 상승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최근 애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점과 관련하여 그 영향이 국내 식탁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상품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장기 안정적 원자재 확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셋째, 주거비 부담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저가 주택임대 시장 활성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주택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또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조기에 신속하게 추진되어 주택 시장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대한 독려와 관리·감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 용자 자금 확대, 주거 관련 난방비에 대한 유류세 감면 확대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넷째, 비생계형 소비인 외식·레저·문화 관련 지출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여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 엔겔 및 슈바베 계수가 높다는 것은 비생계형 소비 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오미크론 대유행세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소비 쿠폰 재개, 문화 바우처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비 특별 공제 확대, 휴가비 지원 사업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비 진작책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임 **HRI**

【부록】 엔겔계수 및 슈바베계수 도출 방법

- 본 보고서의 주된 분석 지표로는 가계소비 항목 중 기본적 생계비에 해당하는 의식주 지출 비중을 사용
 -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의 항목을 이용하여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의식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함
 - 가계소비 중 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상 목적별 소비지출은 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② 주류 및 담배, ③ 의류 및 신발, ④ 임대료 및 수도광열, ⑤ 가계시설 및 운영, ⑥ 의료보건, ⑦ 교통, ⑧ 정보 통신, ⑨ 오락, 스포츠 및 문화, ⑩ 교육 서비스, ⑪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⑫ 기타 항목으로 구분됨

< 국민계정 상 국내소비지출의 위치 >

국민계정의 구성		비 고
GDP(GDE)		
최종소비지출		
민간소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가계소비		
국내 소비지출		계수의 분모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食(엔겔계수)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衣
임대료 및 수도광열		住(슈바베계수)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정보 통신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교육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기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공제)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불일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국내소비지출 중 의류/신발 지출 비중.

- (엔겔계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지출이 국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Engel(1857, 1895)에 따르면 식료품비(食) 지출 비중인 엔겔계수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 값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엔겔계수 도출 산식

$$\frac{\text{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text{국내소비지출}} \times 100 = \text{엔겔계수(\%)}$$

- (슈바베계수) 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이 국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슈바베(Schwabe)계수란 가계 주거비 지출 비중을 말하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 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짐²⁾
 - 본 보고서에서는 협의의 슈바베 계수(주거임대비와 수도·광열비 등)를 사용함³⁾

※ 슈바베계수 도출 산식

$$\frac{\text{임대료 및 수도광열}}{\text{국내소비지출}} \times 100 = \text{슈바베계수(\%)}$$

<참고>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상의 가계소비지출 차이

- ① 조사 대상
 -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은 가계부문에서 소비한 모든 내역을 각종 조사 및 보고통계를 이용하여 전체를 추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에서 소비한 내역을 조사
- ② 귀속임대료 - 국민계정 가계소비지출은 귀속임대료⁴⁾를 포함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가계소비지출은 실제임대료와 자가소유 주택에 대한 귀속임대료를 포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소비지출은 주택에 대한 임차료(월세)와 기타(무상주택, 사택, 영구임대)에 대한 의제주거비를 포함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2) Schwabe(1868), Das Verhältniß von Aliete und Einkommen, Berlin.
 3) 광의 슈바베계수는 가구, 가진 등의 집기까지 포함하는 개념.
 4) 자가(自家) 소유주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로 추정·평가(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제(2020)」 p.126 및 p.161에서 인용.